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 배경 광주에 젊은 독자 집결

소설가 한강. 뉴시스

'한강문학기행' 30일부터 1박2일
전국 대학생 60여 명 광주 방문
금남로투어·5.18묘역·문학강연
김길자 어머니 간담회 등 개최

"젊은 독자, 어린 독자들이 많이 읽어주면 좋겠다. 광주가 이제 점점 언급이 안 되고 있다. 교과서에도 자세한 정황이 나오지 않아 왜곡된 이야기를 듣기 쉬워 자라나는 세대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강 작가는 지난 2014년 6월10일 소설 '소년이 온다' 발간 직후 채널예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독자들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2024년 10월10일.

한국 문학사의 새역사를 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뒤 작가의 바람이 이뤄질 뜻깊은 행사가 오월문학 성지 '광주'에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이 공동주최하는 '한강문학기행'이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이틀간 전국 대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한강 작가의 글을 따라서 걷고 기억하기 위해 '소년이 온다' 소설 속 광주를 직접 방문하는 행사로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홍익대학교 재학생 60여명이 동행한다.

한강문학기행단은 1박2일간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광주정신을 향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첫날인 30일 이달 개소한 전일빌딩245 북카페 '소년이 온다'에서 광주 출신 소설가인 이진 작가와 '인권감수성의 새로운 지평- 광주 5월과 여성'을 주제로 대담한 뒤 '소년이 온다' 등장 배경인 금남로 거리, 상무관, 옛전남도청 등을 둘러본다.

이후 5·18민주화운동교육관으로 이동해 '소년이 온다' 주인공 동호의 모티브가 된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와 간담회를 갖고 1일차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튿날인 다음달 1일에는 '소년이 온다'에 등장하는 희생자들과 열사들을 만나기 위해 국립5·18묘역을 순례하고, 전남대학교로 이동해 '한강의 시선으로 광주를 보다'라는 주제로 김영삼 전남대 국문과 교수의 강연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한강문학기행에 대한 참가자들의 기대도 크다.

한강문학기행 참가자 학국외대 조세연씨는 "평소 한강의 문학을 좋아해서 이번 기행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 광주 방문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주하고 싶다"며 "역사에서 배제된 집단이 아니라 직접 역사를 써 내려간 주체로 섰던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1980년 5월을 치열히 뚫어냈던 이들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문학기행을 계기로 '소년이 온다'의 도시 광주를 방문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질 것 같다"며 "앞으로 5·18 관련 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해 전 국민이 광주를 더 깊이 배우고 경험하도록 차분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문학기행 프로젝트는 한국외대 생활도서관 주관 '소년이 온다' 독서모임을 통해 대학생 참가단을 모집했다. 소설의 등장 배경인 광주를 방문해 5·18의 역사 현장과 유족 등을 면담한 뒤 기행문을 추후 문집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찾아가는 예술배달, 문화보따리' 현장. 광주 동구문화재단 제공

광주 동구,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보따리' 성료

8개월간 23회 방문 공연 선봬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은 문화소외계층인 어르신에게 공연 향유 기회를 제공해 온 '찾아가는 예술배달, 문화보따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문화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 시기 이후 거동이 불편한 재가 독거 어르신 등에 문화예술 공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5회에 걸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참여자의 호응으로 올해 정식 사업으로 편성됐다.

올해 사업은 지난 4월부터 △가정 방문형 △시설 방문형 △거점형 등 3가지 유형으로 8개월간 진행됐다. 동구 관내에 위치한 23개 가정 및 시설을 방문한 가운데 총 511명(대상자 424명, 공연자 87명)이 참여했다.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공모를 통해 참여 예술인을 선정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문화소외계층 향유 지원 사업은 가정에서 원하는 장르의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이다"며 "이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소외계층을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 기자

사물에 깃든 이야기, 문화상품으로 만나자

'구본창: 사물의 초상' 연계 상품

지난 22일 개막한 2024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포커스 '구본창: 사물의 초상' 전시와 연계해 개발된 문화상품 3종이 출시됐다.

26일 ACC재단에 따르면 'ACC 포커스'는 인류 문화예술의 틀을 바꾼 세계적인 아시아 현대미술 거장을 소개하는 전시로, 올해는 한국 현대사진의 선구자인 사진작가 구본창의 작품을 통해 사물에 깃든 한국성과 아시아적 정서를 선보인다.

ACC재단은 이번 전시 작품 중 △인테리어 △비누 △콘크리트 광화문 등의 연작 총 7점을 활용해 한지 달력과 마그넷, 렌티큘러 엽서 등 3종의 상품을 개발했다.

ACC재단이 '구본창: 사물의 초상' 전시와 연계해 개발한 문화상품. ACC재단 제공

박찬 기자

"연말 오페라 감동으로 장식"…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IV'

광주시립오페라단 송년공연
내달 7일 ACC 예술극장 극장1
특별 교육 프로그램 등 다채

오페라 역사에 빛나는 명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마련된다.

광주시립오페라단 2024 송년공연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IV'이 다음 달 7일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펼쳐진다.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등 대중의 사랑을 받은 명곡과 오페라 대표 합창곡들을 선보인다.

박인욱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가 지휘를 맡고 김성근 (사)카메라타전남 피아니스트와 함께 세기의 명곡들을 연주한다.

특별 초청된 '한국의 파바로티' 테너 조용갑, 광주CBS어린이합창단, 그리고 안무가 신승우와 이승민 무용수가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올 한 해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주역으로 활약한 오페라 스타들이 총출동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소프라노 김희정, 테너 강동명, 바리톤 공병우와 함께 '토스카'의 소프라노 김라희, '신데렐라'의 메조소프라노 서미선 등이 오페라의 진한 감동을 재현한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펼쳐질 감미로운 명곡의 향연은 황정숙 아나운서의 흥미로운 해설과 함께 연말 누구나 쉽게 오페라의 깊은 감동을 만끽할 수 있다.

공연 당일 관객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7일 오전 11시 ACC 예술극장 '빛' 라운지에서는 오페라 관람객을 위한 관객 아카데미 '오페라 the 가까이'가 무료로 진행된다. △전문가의 작품 해설 △출연진과의 대담 △오페라 아리아 공연 △관객과의 소통으로 구성됐다. 오페라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신청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의 문화예술교실 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로 이뤄진다.

최철 예술감독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연말을 보낼 수 있는 광주시립오페라단만의 선물 같은 시간을 준비했다"며 "올 한 해의 끝을 오페라의 감동으로 장식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공연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박찬 기자**

광주 서구문화원, '들숨에 서구, 날숨에 문화페스타' 개최

내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문화교실 수강생 성과 발표회

광주 서구문화원은 '들숨에 서구, 날숨에 문화페스타'를 29일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문화교실에 참여했던 수강생들의 작품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강생 작품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운영된다.

작품 발표에는 13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한다. 오후 1시부터 캘리그라피반, 수채화반, 사진반, 아크릴화반 수강생들의 작품 40여점이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로비에서 전시된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우쿨렐레반, 팬플룻반, 하모니카반, 영어반, 시낭송반, 연극반, 문예창작반 수강생들이 아름다운 선율의 공연을 연다. 또 빛고을국악전수관 야외공연장에서 인절미 만들기, 떡메 체험 등이 진행된다.

광주 서구문화원이 29일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들숨에 서구, 날숨에 문화페스타'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4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 '빛고을문화교실 발표회' 하모니카반 공연. 광주 서구문화원 제공

이날 제14회 빛고을문예백일장 '서구 마을이야기'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정인서 서구문화원장은 "그동안 시민연극제, 시낭송회, 알로하뮤직페스티벌, 백일장, 이야기 공모전, 비엔날레 협력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는 일부 프로그램을 통합해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 서구문화원(062-681-4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